

2016년도 표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자』 (엡 4:12)	NEW 순복음Life 제3호	발행일 : 2016. 7. 3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	--	---



<이달의 기도>

사랑하는 자들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힘들고 지쳐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함과 선행으로
내 이웃을 돌아보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가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배려와 섬김으로
주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참 사랑을 알게 하시어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선행으로 주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하시어
이 악한 세상에
믿는 자들의 올바른 신앙과 그리스도의 향기로
행복한 웃음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송미정 집사>

<이달의 신앙 간증>

-이진영 권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저는 당진순복음교회 주일학교 달란트잔치에 참여 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를 지내 오면서 세상으로 눈 돌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버티어 왔는지, 그 순간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나의 능력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였고, 세상의 무엇으로도 해결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사랑한 나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로 버티어 왔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 하다고 했던 현대제철에 입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합격하여 일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그동안 해오던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이유로 공적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피곤함을 핑계로 많이 게을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큰 생각의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하시고 하나님께서 입사 시켜주셨으니 나의 피곤함과, 어려움을 알고 계실거야. 다 이해 해주실 거야” 라고 당당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 해 보면 주일학교에서 청년회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소통하셨음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사를 하고 나서 몇 년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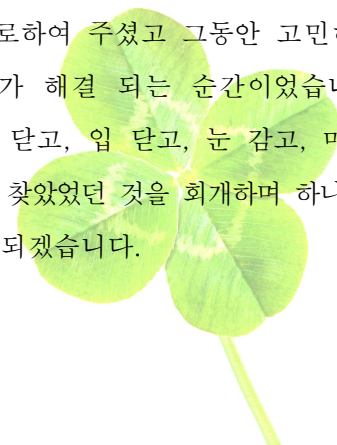
“회사의 일이 힘들지? 그래도 나는 네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은데, 예배에 방해되는 것을 내가 거두어 갈까?” 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느 대답도 할 수 없었고, 이런 저런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일찍 출근 하는데 그날 따라 불 켜진 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 갔는데 그날만큼은

“나는 왜 저 성전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이전보다 조금 더 서둘러 준비하고 출근 전에 새벽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처음 드리는 새벽 예배였으며 그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은 아니지만 저에게 주신 감동은

“무엇을 걱정하느냐 걱정하지마라 네가 믿는 나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줄게” 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여 주셨고 그동안 고민하던 것들 모두 헛된 고민이었으며 모든 문제가 해결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생각만 하며, 나의 손익을 따지며 귀 닫고, 입 닫고, 눈 감고, 마음 문 닫고, 나 자신이 필요 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었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달에 issue>

우리를 위협하는 화학물질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생활용품들이 우리들에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한동안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가습기 세정제 뿐 아니라 그것을 필두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제들이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혹시 내가 사용하는 것 중에 내 생명과 우리가족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해서이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상에 떠도는 모든 기사들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우리생활에 밀접하게 사용하는 모든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니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것이 있다. 케미컬 포비아 이다. 이들은 화학제품을 믿지 못해 DIY(do it yourself) 천연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아주 소소한 생활용품에서부터 화장품까지 많은 것들을 천연 오일 등을 활용해서 만들어 일상에서 사용 한다.



모든 것을 천연제품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다. 화학제품이더라도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확인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 성경의 쓴맛



사도 요한은 성경말씀을 먹어 버리니 "배에서 쓰게 되더라"(계10:10)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예언이신 예수님이 어찌나 쓰던지 그걸 못 견디고 그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쓰다는 사실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다들 지독하게도 성경을 안 읽지요.^^ 아주 소태, 민들레뿌리, 블랙커피보다도 더 치를 떨며 성경 안 봅니다.

성경을 읽으면 왜 입맛이 써질까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삶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짝짝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양심이 찢려서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 성경의 쓴 맛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것입니다. 제대로 읽어야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쓴 맛을 봐야 쓴 맛 뒤에 달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성경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이 후배 파이고 아리도록 아파서 쓴 물이 배에서부터 올라와야 성경이 우리에게 보약이 됩니다. 보약 드세요. 아주 쓴 성경 보약!



2. 성경의 단맛

사도 요한은 성경말씀을 먹어 버리니 "내 입에 꿀같이 달다"(계10:10)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기어다닐 즈음에 성경책 표지에 꿀을 바른 다음 그걸 혀로 빨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기는 성경은 달다는 인식이 무의식 가운데 새겨져 평생도록 성경은 단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것이지요..성경이 꿀처럼 달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아주 지리산 순 토종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하고 감미롭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참 맛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기저기 성경책이 굴러다니고 어떤 분은 가지고 다니기 귀찮다고 교회에 두고 다니지요.

성경은 영혼이 먹는 양식입니다. 내 영혼도 정기적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데, 성경책을 교회에 두고 다니면 어떻게 매일 밥을 먹습니까? 성경 맛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영혼은 금식시키면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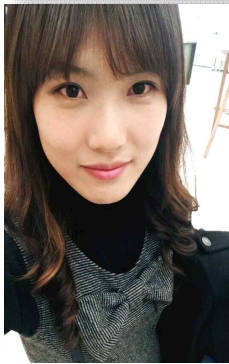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 성경의 단 맛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신앙생활의 모든 목표를 '성경말씀의 맛'을 경험하는데 맞추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성도를 알아가는 질문>

- 송미숙 권찰 -

1. 결혼은 언제 어디서 몇 살에 하셨어요?
2005년 11월 13일 26살에 수원에서 하였습니다.
2. 학창시절 제일 좋았던 과목이 궁금합니다.
이것이 왜 궁금한 것일까요 ^^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국어와 가사이었던 것 같아요.
3. 슬하에 자녀를 삼남매를 두셨는데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 더 낳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삼남매면 충성을 다한 듯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4. 어린 시절 이상형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이상형과 지금의 남편분이 많이 맞아 떨어지시는지요?
크게 어린 시절 이상형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외형적으로 굳이 말하자면 장동건, 원빈과 같은 조각남은 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남편.....아주 평범한(?) 외모의 남편을 만난 듯합니다^^
5. 송혜교를 닮았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하하^^누가 들음 큰일 날 소리긴 하지만..... 사실 몇 번 들었습니다.
옛날 아가씨 때죠. 지금의 외모와 머리 스타일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네요. 그래도 송혜교가 최고의 연예인이다 보니 듣기 싫지는 않더라고요. ^^
6. 자신의 살림점수는 몇 점을 주시겠어요?
멋진 워킹 맘들도 있는데 부족하죠. 그래도 꼭 짚어 점수를 나타내자면 70점! 나머지 30점을 향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7. 남편분의 어느 부분이 좋으셔서 결혼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되면 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받아들이자는 사람이죠.
또한 자신감이 있고 당당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격들이 모두 저와 반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면 제가 의지하고 기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죠^^ 지금도 이 부분들이 저의 부족한 곳을 채워주는 가정적이고 자상한 남편입니다.



8. 자신 있게 잘하는 요리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요리는 사실 너무 쉬운 것들이라 말씀 드리기가 창피합니다.
그냥 즐겨하는 요리라고 말씀드리자면 아이들 간식 만들어 주기를 좋아합니다.
다양한 종류들의 떡볶이, 속이 짭 찬 영양샌드위치, 고봉민 김밥을 따라하는 여러 김밥 종류 등입니다
9. 막내 동유가 아빠처럼 큰다면 만족하시는지요?
아빠처럼 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애매하지만 제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해드리자면 저는 좋습니다.
너무 저의 남편 칭찬을 계속하는 것 같아 쑥스럽네요^^
10. 자신의 성격적인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저의 장점은 사교성이 그래도 조금 좋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단점은 내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당당하지 못합니다. 남의 시선도 많이 신경 쓰고 귀가 얇다는 말 있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결정하기가 참 힘들 정도 이니깐요.ㅜㅜ
11. 가끔 보면 저 허리로 어떻게 서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허리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나요?
25-26정도 입니다. 당연 아줌마인데 뱃살은 있죠. 공감되시는 분들은 아실거예요. 살짝 뱃살 들어올려 후크 잠그고 입으면 거뜬히 작은 사이즈도 문제 없습니다.
12. 이 순간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저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시고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모두 편찮으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 하면 마지막 아프시면서 약해지셨던 모습들만 기억에 떠오릅니다. 지금은 평안히 하늘나라에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
13. 교회를 맨 처음 갔을 때는 언제였고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학창시절까지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엄마께서 교회에 다니시고 언니 오빠들 따라 교회에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지식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성경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4. 우리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생각나는 것 말씀해 주세요.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저는 다~~감사하고 지금이 너무 좋아요. 여러 교회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과 따뜻함 속의 단합이 특별한 것 같아요.
그것에 뽕~~했답니다.

15. 신앙의 롤 모델이 있으신지요?

한번씩 저도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2년 동안의 저의 구역장님이 되시는 장명희집사님입니다. 그 분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모든 것들은 신앙의 간증과 감사의 고백들이고 제가 힘들어 할 때 집사님의 스쳐 지나간 말씀들이 다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모르게 어느새 그러한 입술의 고백들을 닮아가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작은 저의 신앙 성장이지만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챙겨주시는 집사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 우리아이가 이런 교회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주님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의 욕심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은이가 피아노를 7살 때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체르니100번 중반부 하고 있고요. 진도가 빠르진 않아요. 하은이가 피아노에 흥미가 있어 알아서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아이에게 달란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노력을 시켜서라도 일꾼으로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17.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과 가장 잘했다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부모님께 살아생전 잘 해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후회가 되니까요. 잘 했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머릿속에 스쳐지나가는 것은 운전 하는 것?^^
성전에 다니며 성도님들께 차량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즐겁습니다.

18. 우리교회 오셔서 드린 예배 중에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으신가요?
저희 집 심방예배입니다.....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걸 알고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 자신의 18번 찬양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18번일까요? ^^제 입술에 저도 모르게 자주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살아계신 주”입니다. 부분부분 아이들도 가사를 외워 따라 부르더라고요.

20. 기도, 사회, 찬양, 인도 중 가장 자신 있는 주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말씀을 아직 많이 알지 못하여 자신이 없고, 사회는 말주변이 없어 자신이 없고, 찬양인도는 늘 부럽지만 노래를 정말 못해서 자신이 없네요. ^^ 열심히 기도 하겠습니다.

21. 기관의 회장이 힘들다 생각하시나요? 총무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 두 분 모두 힘드시죠.....그래도 순종하시며 리더해 주시는 모습보며 감사하고 잘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2. 어려운 질문인데요, 만약에 세 자녀 중에 목회자님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종의 길을 걷겠다 하는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 속에 이루어 주시는 일이신데 감사히 따라야죠. 목사님 사역이 많이 힘드시겠구나 라는 것을 감히 제가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만 함께 해 주신다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겠죠.

23. 내일 당장 죽는다 가정하시고 유언을 적어주세요.
제가 부모님을 잃은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가슴 아파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힘들어 하며 느낀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 할 텐데.....’ 그것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신 있게 이야기 해 주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엄마는 천국에 가니 슬퍼하지 말고 다음에 꼭 만나자꾸나” 라고.....

24. 아마도 나중에 권사의 직분을 받게 되시겠지요? 가장 바람직한 권사님의 모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미래의 송권사님의 모습을 스케치 해주세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요즘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자주 말씀해주시는 “주의 종처럼 살아가라”의 충성이겠지요. 잘 알고 있지만 참 힘들기도 한 부분인것 같아요. 전도사님과 성경공부 중 듣게 되었습니다. 직분 위치에 따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또한 다르다고요. 미래의 저에게 권사의 축복이 닿는 날까지 열심히 충성하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생활정보 40가지

1. 양치 후 양치물을 변기통에 뱉고 10분 후 물을 내리면 신기하게 악취가 사라집니다.
2. 달걀을 삶기 전에 한 시간 정도 실온에 둔 다음 소금을 약간 넣어주거나 식초를 몇 방울 넣으면 터지지도 않고 잘 삶아집니다.
3. 눅눅해진 김을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돌려주면 다시 바삭바삭 해집니다.
4. 옷에 불펜자국이 묻었을 때는 물파스로 싹싹 문질러 주면 불펜자국이 잘 지워집니다.
5. 돼지고기를 요리할 때 커피 한 스푼만 넣으면 잡냄새를 말끔히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6. 말라서 딱딱해진 식빵 사이에 새 식빵을 끼워주면 새 식빵처럼 촉촉해집니다.
7. 사과 반쪽을 차 안에 하룻밤 놔두면 차 안에 냄새가 제거됩니다.
8. 장미꽃을 화병에 꽂을 때 소다수를 부으면 시들지 않고 오래 갑니다.
9. 옷에 묻은 잉크의 얼룩은 하룻밤 동안 우유에 담가 두었다가 빨면 깨끗이 없어집니다.
10. 더러운 욕조는 버터와 고운 소금 그리고 우유를 섞어 닦아주면 새 것과 같이 윤이 납니다.
11. 아파트 하수구가 막히면 거친 소금을 한 주먹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뚫립니다.
12. 삶는 빨래는 삼베주머니에 계란 껍질을 넣고 삶으면 눈 같이 하얗게 됩니다.
13. 가격표나 상표가 붙어있던 자리에 남아있는 흔적은 식용유로 닦으면 제거됩니다.
14. 양파를 사오면 싹이 나오는데 양파 봉지에 빵 한쪽 넣어 두면 쉽게 싹이 나지 않습니다.
15. 거울이나 유리를 닦을 때 식초에 젖은 수건으로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16. 색이 바랜 플라스틱 용기(화분이나 창문 틀)는 버터로 닦아주면 다시 본래 색으로 됩니다.
17. 잘못 붙인 우표를 잘 떼려면 냉각 통에 잠시 넣었다 떼면 됩니다.
18. 발 저릴 때는 다리를 X자로 교차하고 30초 정도 꿇었다 일어나면 신기하게도 발저림이 사라집니다.
19. 딸꾹질은 혀를 잡아당겨 신경에 자극을 주면 멈추게 됩니다.
20. 번기의 때를 없앨 때는 콜라를 사용하면 함유된 시트르산이 깨끗하게 해줍니다.

21. 흰색 면양말이 오래 신어 본래의 색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레몬 껍질을 두어 조각 넣어주면 새하얗게 됩니다.
22. 검은 옷에 묻은 먼지는 스펀지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23. 미지근한 콜라를 키친타월에 감싼 후 냉장고에 15분가량 넣어두면 시원해집니다.
24. 청소기에 스타킹을 감싸 고정시킨 후 청소기를 작동시키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25. 끓거나 삶는 요리를 할 때에는 냄비 위에 나무 주걱을 올려놓으면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6. 먹다 남은 과자에 각설탕을 넣어 보관하면 눅눅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7. 팔꿈치와 무릎이 검게 변했을 때 레몬조각으로 문지르면 깨끗해집니다.
28. 욕실 거울에 김이 서렸을 때 거울에 비누칠을 한 뒤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면 김이 서리지 않습니다.
29. 기름때 묻은 벽지에 맥주를 묻혀 닦아 내면 말끔히 지워집니다.
30. 냉장고에 소주 뚜껑을 열어 넣어 놓으면 냉장고 냄새가 사라집니다.
31. 쓰레기통의 냄새를 제거하고 싶다면 밀바닥에 신문지를 여러 장 겹쳐 깔아놓고 표백제를 뿌려두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32. 보온병에 잘게 부순 달걀껍질과 물을 넣어 흔들어주면 보온병이 깨끗이 청소됩니다.
33. 김빠진 콜라를 변기통에 붓고 30분 후 물을 내리면 변기 속이 깨끗해집니다.
34. 스마트폰으로 노래를 들을 때 사기그릇에 넣어두면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35. 쌀 안에 고추나 마늘을 넣어두면 쌀벌레가 생기기 않습니다.
36. 손의 잉크가 묻으면 굴껍질의 즙을 이용해 지울 수 있습니다.
37. 손가락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 뺀 후 꿀을 푸면 깔끔하게 퍼집니다.
38. 건전지 수명이 다 되었을 때 망치나 드라이버로 건전지의 옆면을 4~5번 가랑 두드리면 작동됩니다.
39. 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 파인애플을 먹으면 내려갑니다.
40. 벽에 못을 박을 때 못에 기름칠을 하면 거짓말처럼 잘 들어갑니다.

<이달의 새가족 소개>

윤흥기 성도님

- * 아내 강연순권사님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셨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하나님 믿으면서 산다는 게 행복할 것 같았어요
- * 처음 교회 오신 날 분위기는 어땠나요?
성도들이 서로 친밀하고 가족들 같았어요
- * 첫 인상이 강하게 느껴진 분은?
당연히 목사님과 이병철 장로님요.
- * 신앙생활 목표는 뭐예요?
열정과 열심있는 신앙으로 장로님 직분까지 가고 싶네요
- * 지금 신앙생활 중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설교말씀 들을 땐 은혜 받지만 오래 기억하지 못해서 속상해요
- * 기도 제목이 뭐예요?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자녀들이 형통하길 원하고 아내인 강권사를 기쁘게 해 주고 싶네요
- * 우리 교회에서 하시고 싶은 봉사가 있으세요?
크고 어려운건 잘못 할 것 같고요~
교회 주변 환경이라든가 차량 봉사정도는 할 수 있어요
- * 우리 성도님들 중 닮고 싶은 분은 누구예요?
이영길 장로님과 이병철 장로님을 닮고 싶어요.
- *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도전받으신 것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특히 특별새벽기도 1주일만은 정말 좋았습니다.



■ 윤흥기 성도님은 작년 추수감사절 찬양대회 때 우리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해 주신 분으로 인상깊이 남아 있습니다. 아내인 강연순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의 가정이 되셨고 그 모습이 모두에게 귀감이 되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을 믿었지만 오랜 기간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을 거절치 않으시고 순종하시어 다시 믿음의 반열에 발을 내딛으셨으니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한 마음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은혜와 축복 받으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달의 행사사진>



우리교회 가장 큰 보화 한나!! 풍성한 신앙인들입니다.
<2016년 한나여선교회 헌신예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급 부흥중인 멋진 요한남선교회 파이팅~~
<2016년 요한남선교회 헌신예배>

시사용어 Briefing

1. 깨진 유리창 이론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작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거리에서 상태가 비슷한 차량 두 대를 배치한 후 보닛을 열어두고 그 중 한 대만 유리창을 깨트려 방치해 놔습니다.
실험결과 보닛만 열어놓은 차는 일주일 후에도 깨끗했지만 유리창이 깨진 차는 몇 일이 채 지나지 않아 타이어와 배터리가 없어지고 심지어는 심한 낙서와 다른 파손도 있었다고 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매우 사소해보이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큰 일로 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 내에서도 사소한 실수 하나가 나중에는 큰 불신으로 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2. 칵테일 파티 효과

아주 시끄러운 장소에서 쉽게 자신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선택적으로 소리를 듣는 우리의 우뇌 능력 때문입니다.
2012년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이 실험한 두뇌 움직임 실험에서 특정 음성에 반응하는 뉴런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으로 평가되었던 것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충간소음과, 동전 떨어지는 소리 등의 물리적인 사례도 있지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무심한 행동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받아들이는 사례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망상증 환자에 대한 사례를 말하기도 합니다.

3. 블랙스완 효과

백조라고 한다면 새하얀 백조를 연상하게 하는데요.
흑조 또한 존재 한다는것을 알고 계신가요?
1679년 영국의 자연학자 존라삼은 호주 서쪽 스완강에서 흑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흑조의 발견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는데요.

블랙스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 '고정관념과 다른 상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었지만 존라삼의 블랙스완 발견이후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가져오는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일컫는 뜻으로 변했습니다.

4. 고슴도치 딜레마

고슴도치 딜레마는 쇼펜하우어 저서의 등장하는데요.
추운 겨울 몸을 따뜻하기 위해 고슴도치들이 서로 모이지만 가까워질수록 가시 때문에 상처받고 다시 멀어지게 되죠.
이러한 행동을 반복을 하다 고슴도치는 서로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고슴도치 딜레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일정거리 이상 거리가 가까워지면 상처 입을까 두려워하는 현대인을 말하는데요.
고슴도치 딜레마를 극복하는 사례로 많이 언급되는 시사용어입니다.

<유머>

어떤 여자의 실수

버스에서 한 여자가 갑자기 방귀를 끼고 싶었다.
그러나 버스 안이라 꼭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 "과광광~" 하고 힘차게 울려 퍼졌다.
여자는 이때다 싶어 음악소리에 맞춰 방귀를 마음 놓고 끼었다.
속이 후련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기 쪽을 보고 웃고 있었다.
여자는 불안했다.
자신의 작전이 완벽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었다.
"음악은 자기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 울려 나왔기 때문이었다."

성경 숨은 그림 찾기



예수께서 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열두 바구니를 거두니라 (누가복음 9장 16~17절)
(숨은그림 : 밥, 압정, 햄버거, 홀라후프, 까마귀)

* 미움을 받는 이유 - essay.68 -



*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가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한가지의 이유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행실 때문인가요?

<주일학교 소식>



6월 둘째 주 당진순복음교회 다니엘유초등부 3부순서는

도전 **성경골든벨**이었다.

올해는 출애굽기 골든벨로서 출애굽기에서만 50여 문제를 발췌 하였다.

6학년 담임인 이종희 선생님의 지도로 이루어진 골든벨 프로그램은

첫째 주와 둘째 주 총 2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주엔 문제배포와 각반 선생님과 아이들의 골든벨 공부시간이 있었고

둘째 주, 그러니까 6월 12일엔 골든벨 퀴즈대회 시간이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으며 당일날도

손에 골든벨 예상 프린트물을 쥐고 다니는 어린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공부를 해온 친구들도,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모두 골든벨 시간이 다가오자

얼굴에 긴장의 모습이 역력하였으며 많은 친구들이 바로 직전 시간까지도

프린트물을 손에서 떼지 못하였다. 소예배실에서 진행되어진 골든벨시간,

문제는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가 섞여있었고 패자부활의 기회는 있었

으나 한번 틀리면 떨어지며 마지막 일인이 나올 때까지 퀴즈를 푸는 서

바이벨 형식으로 진행되어졌다.

자신의 답이 틀려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아이들은 못내 아쉬워 속상

한 마음을 감추지를 못했고 어떤 아이는 아쉬움에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다.

답이 불리어졌음에도 한 문제라도 더 맞추고 싶은 마음에 답을 고치고 싶

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잼싸게 답을 고쳤다가 선생님의 눈에 발각

되어 끌려 나가다시피 퇴출되는 웃지 못 할 광경도 연출 되었다

특히 이날은 리브가 여선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맛있는 샌드위치와 수박을 간식으로 찬조해 주셨다.

긴장했던 골든벨 시간을 다 마치고 먹었던 샌드위치는 꿀맛과도 같았으며 헌신

해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사랑으로 은혜와 감사가 충만했던 날이었다.

마침내 두 어린이가 남았다 4학년 박시우와 6학년 전지인 이었다



1등 2등을 가리는 마지막 문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안한 재판관의 자격의 문제였는데 시우는 그만 답을 적지 못했고 정직한 자, 불의를 싫어 하는자 라고 가장 정답에 가깝게 적은 지인이기 마지막 일인이 되었다

결국

1등 전지인

2등 박시우

3등 임하영



이렇게 세 어린이가 영애의 출애굽기 골든벨 수상자의 기쁨을 얻었으며 순위에 들지 못한 다른 아이들에게도 내년엔 나도 꼭 일어삼등 자리에 서보겠다는 도전과 결심의 시간이었다.

<예화>

할머니의 지팡이

오솔길을 걷던 꼬부랑 할머니가 두 갈래 길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의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 길로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 길로 걸어갈게요……."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의 지팡이를 길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기를 원했던 할머니는 "하나님 한번 만 더 해볼게요." 하며 지팡이를

다시 세워보았으나 지팡이는 또다시 오른쪽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기가 발동한 할머니는 지팡이를 계속해서 세웠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는 "역시 하나님은 나를 왼쪽 길로 인도하시는 구나……."

하면서 유유히 왼쪽 길로 걸어갔답니다. 오늘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지닌 자가 몇이나 있으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자 몇이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은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모든 계획을 세워 놓고 실천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이웃을 돌아보라

<김 미 진 집사>

세상이 악해졌다. 어두워졌다.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사건과 사고가 많고 내가 살아있으며 무탈한 이 하루가 오히려 기적이다. 요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걱정하며 하루를 살고 또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악의적인 사건과 사고를 보며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며 탄식하는 가운데 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은 우리를 어두움에 방치시켰는지 이제 어지간히 큰 강력사건이 터져도 크게 놀라지 않게 되었다. 모두들 무뎌져 가고 있다. 그저 나만, 내 가족만 안전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되는 이기적인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 요즘 식당에선 예전에 볼 수 없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단다. 더치페이가 성행하다보니 여러 명이 한 밥상에 앉아 같이 식사를 하고 그걸 나누어 각자 카드로 계산한다. 이타적인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단면이다.

몇 년 전 주일 낮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하여 들은 생소했던 단어 하나가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프랑스어로 ‘귀족’과 ‘의무’의 합성어로 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말한다. 그때 목사님께선 이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최근 설교에서 “미니멀라이프”를 소개하시면서 내게 꼭 필요한 물건들만 남겨 그것으로 생활하고 나머지 없어도 되는 물건들은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부하는 생활을 말씀하셨다.

정말 매력있는 생활운동이다. 나의 생활은 아주 심플하게 정리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석이조의 생활방식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6월을 시작하면서 “네 이웃을 돌아보라”는 생활실천표어를 가지고 생활했다. 새벽예배나 대예배를 통하여 이웃을 돌아보는 방법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내 이웃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배웠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말씀하시며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셨듯이 우리 믿는 성도 또한 나의 살과 피를 아까워하지 말고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내 것을 아끼면서는 결코 남을 위해 헌신 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구별되고 올바른 행실로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한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나의 작은 선행이 빛이 되고 그 빛이 어둡고 악하여지는 세상을 좀 더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줄 믿는다.

우리 당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는 지난 한달 간 지키며 배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에게 보일 수 있길 소망하며 기도한다.

이달의 교회소식

1. 맥추감사절(3)
2. 촌극대회(3)
3. 침례문답식(17)
4. 교사헌신예배(17)
5. 교사단합대회(19)
6. 찬양단헌신예배(31)

공지사항

1. 하계수련회 - 8월 1일~4일(3박4일)
2. 여름성경학교 - 8월 19일~21일

이달의 교우소식

1. 출산 - 조은희성도, 7월 4일 분만예정
2. 군 휴가 - 김성광일병(7월 29일~)
김연훈일병(8월 1일~)

문서위원회

위원장 : 김미진 집사
 위 원 :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권찰
 전수현 권찰
 조은희 성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